

전북자치도, 여름철 재난 대비 '총력 대응'

29개 도 협업부서, 시·군 참여 호우·태풍·폭염 대비 중점 추진대책 논의

전북자치도는 4일 도 29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재난 대비와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6월부터 8월까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여름철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점검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산사태 등 사면 붕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상황과 중점 추진 대책을 공유하는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와 시·군이 협

력해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여름철을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확대(382→506개소)하고 도내 배수펌프장(시군 56개소, 농공 85개소)와 무더위쉼터 냉방기를 전수 점검하고,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차단시설과 지하차도 인명탈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폭염에 대응해서는 11억 원을 투입해 폭염 저감시설 38개소를 확충하고 폭염 취약계층 약 36만 명을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지원 등 여름철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어린이 이용시설, 유원시설, 노후 건축물 등 1,537개소를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추진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6월 22일까지 점검을 완료해, 그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보강 등 빈틈없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극한 강우와 이상 고온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대응 대책을 기반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과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과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4일 도 29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재난 대비와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농촌 활성화로 지방소멸 대응 나선다

시군 농촌현장활동가 통합워크숍서 전문성 향상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도내 농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14개 시·군 농촌현장활동가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통합워크숍에는 농촌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농

촌관광 및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 농촌현장활동가 1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농촌 경제·사회서비스와 함께 농촌공동체 조직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하에 상호 간의 공동의 제 채택 및 선언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노력에 합의했다.

또한, 올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법률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점에 대해 황영도 전북연구원 박사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통합워크숍에 참석한 한 농촌현장활동가는 "농촌 지역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저와 같은 농촌활동가가 미래 농촌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

다"고 말했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농촌활력과정은 "지금의 농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뛰어난 농촌현장활동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방소멸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통합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2024년 중간소음 갈등조정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곽동희) 주관으로 '중간소음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총 10개 강좌로 중간소

음 분쟁과 법률, 공동체 회복과 갈등관리, 중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직과 활동으로 중간소음에 대한 이해와 갈등관리가 주요 내용이며, 공동주택 문화연수원 표승범 소장 등 전국의 여러 중간소음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

한다.

교육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및 입주자 대표·이웃 간 소통에 관심 있는 도민이 대상으로, 교육참여 희망자는 5일까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중간소음 역량 강화 교육은 2018년도

부터 매년 실시되어 공동주택 관리소 임원, 입주자 대표 등 227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그간 수료생들은 강화된 역량으로 이웃 간 다툼 발생 시 보다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어 이웃소통에 대한 본 교육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자녀 가정 아동에 혜택 확대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추세에 대응해 다자녀 가정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확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두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의 농업·농촌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조아' 카드 소지자만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카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인 경우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와 등록자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치를 마련했다.

이민숙 어린이창의체험관 관장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체험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조례개정에 앞장섰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창의체험관은 28개 체험시설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놀이터와 잔디광장 등 가족 단위 내들이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복합체험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하루평균 680명, 연평균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적 및 공간정보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부안 변산에서 '2024년도 지적 및 공간정보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LX 전북본부가 주최 및 주관하고 공무원과 지적측량 수행자 등 120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의 이용과 기본 개념인 지적에 관한 업무 개선 방안, 지적측량 발전 방향, 이외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의 연구과제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장이 됐다.

연구과제는 사전에 도내 시·군 공무원, 관련 대학,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적 및 공간정보업무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을 공모해 23편이 출품됐다.

출품된 연구과제는 지적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들의 사전심사를 통해 본대회에서 발표할 연구과제 8편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대회에서 연구의 필요성,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 등을 심사해 선정한 4편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여했고, 이중 최우수 연구과제인 2편은 국토교통부 주관 제47회 전국 지적세미나에 우리도 대표과제로 제출된다.

이외에도 국내 우수 항측기업 첨단 디지털 공간정보 장비인 정밀도로지도 제작 시스템(MMS)을 전시 및 시연하는 등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하고, 시설물 위치 측정과 지적측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다뤄진 연구과제는 지적측량, 지적행정, 지적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자치도가 소속 직원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공영장에서 도, 14개 시·군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적극 행정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강사로 선정된 임규진 행정안

전부 사무관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 행정 이해와 필요성, 유형별 적극 행정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기관별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적극 행정업무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무사례 위주 강의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